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Belief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이주희, 서은숙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oo-Hee Lee(maaree@dsu.ac.kr), Eun-Suk Seo(sesmtm@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G광역시와 J도 소재 4년제 대학생 305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신념,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SPSS 22.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각각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담현장에서 부모의 통제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전략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중심어 : | 심리적 통제 | 역기능적 신념 | 정서표현 양가성 | 대인관계문제 |

Abstract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belief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cale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For that purpose, 305 4-year university students in G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were surveyed to rate the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cale, dysfunctional belie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SPSS Macro.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ysfunctional belief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scal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lso, dysfunctional belief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 du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scale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 a result of testing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Bootstrapping, dysfunctional belief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ad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stablish a useful theoretical foundation for counseling strategies to efficiently help through counseling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with interpersonal relations due to parental control.

■ keyword : | Psychological Control | Dysfunctional Belief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 Interpersonal Problem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생존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감과 안정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1][2]. 즉, 대인관계는 불행의 원천이기도 하고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3]. 특히 대학생 시기에 접어들어서면 대인관계가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함께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3]. 대학생 시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공허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4]. 나아가 대학 졸업 이후 직장과 사회에서도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며 부적응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5].

대학생들이 상담 장면에서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는 어려움 또한 대인관계문제이다[6]. 즉, 대학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많은 문제들이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7]. 대인관계에서 겪는 문제는 심리 및 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8][9].

이처럼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들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아동 청소년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부모의 걱정이 끊이지 않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10][11]. 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지면 개인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허용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시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부모의 행동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일반적인 태도를 말한다[13]. 성인애착에서 오는 불안-회피 또한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또한 부모의 무관심한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타인에 대한 거부민

감성을 높게 하고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대학생 자녀에게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 또한 역기능적 신념을 형성하고 사회불안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15].

더불어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면 애착불안이 높아지고 사람들과는 양가적인 관계패턴을 가지며, 정서표현에서 정서접촉을 회피하고 표현을 억제하는 양상을 보였다[16].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또한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어, 정서표현 양가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17].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을 규명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각 변인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 자녀의 인지, 정서와 관련되며, 인지, 정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 간에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중매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면서 다수의 학자들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였다[12][18][19]. 그 결과 인지, 정서, 거부민감성, 자기비하 등이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매개변인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통제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이해와 예방효과를 높이고 대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적응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유용한 이론적 기초자료로써 효율적인 상담전략을 제공하는데 있다.

-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 자기표현 제한, 죄의식 유발, 감정 무효화, 개인 사회적 수동적 공격 등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알려졌다[20].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자녀가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부정적인 감정, 죄의식이나 두려움 같은 정서를 느끼면서 자라게 되면[20],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예민함과 사회적 상황에서 민감해지고 두려움이 커진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자녀의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한 내재화 문제와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자아형성에도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21][2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하며[12],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23][24]. 부모의 무관심과 거부적인 양육태도 또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26].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 신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28], 정서표현 양가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9][30]. 위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과도할 경우 청소년의 인지 및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또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요인, 특히 인지적-정서적 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31].

2. 역기능적 신념

역기능적 신념이란 인지적 차원으로서 기질이나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성장하면서 형성되는 부정적인 신념으로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극단적인 선택과 결정에서 오는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32]. 역기능적인 신념이 강하면 부정적인 자기개념과 타인에 대해 경직된 태도로 사회적 상황에서 위협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33]. 즉 역기능적 신념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의도적이고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여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불안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가 유발될 수 있다[34].

역기능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들 수 있다. 부모가 심리적으로 청소년 자녀를 통제할수록 이 시기에 발달이 증가하는 자율성과 이성적 사고의 발달을 침해받음으로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35]. 역기능적 신념은 인지적 오류로 인해 특정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편향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든다[36]. 이 같은 부정적인 신념은 사회적인 자극에 대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극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적 감정이나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만든다.

역기능적 신념으로 인한 내적갈등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하고도 후회하게 만드는 정서표현 양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적응적 도식이나 신념은 사고나 감정, 행동패턴 등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그 자체가 불안, 우울, 적대 감정과 같은 정서문제에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표현에 대한 어려움을 매개하여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역기능적 도식이 부정적 감정이나 대인관계문제를 유발 할 때 정서표현에 곤란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역기능적 신념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대인관계능력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역기능적 신념을 살펴보았다.

3.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 양가성은 욕구 이면에 있는 정서표현의 심리적 갈등을 의미한다[38]. 정서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심리적인 핵심문제가 아니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에서 내적갈등을 경험한 것이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39][40]. 즉 정서표현 양가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심리적 안정감이 낮아지는 것이다[41].

부정적인 정서경험은 대인관계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충분히 수용해 주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2][43]. 반면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그에 대해 처벌을 하면 자녀는 또래관계에서 위축되어 눈치를 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정서적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사회적 지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상대의 반응을 오해석하여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45].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정서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46][47].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역기능적 신념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변인으

로써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 대인관계문제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대인관계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48][49]. 대인관계문제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50]. 또한 대인관계문제는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이라고 하였다[51]. 대인관계에서 겪는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거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며, 적응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2][53].

특히 대학생들은 성숙하고 폭넓은 대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놓여 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교, 학과, 동아리, 직업체험과정, 아르바이트 근무처 등 다양한 조직에 소속되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대인관계를 적절하게 형성하고 유지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불안, 우울, 소외, 거부민감성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54-56]. 따라서 대학생들이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폭넓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대학생활 적응뿐 아니라 이후 직장과 사회에서의 적응에도 매우 중요하다.

대인관계문제는 부모의 영향에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출생부터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의 대인관계 형성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57]. 이처럼 부모와의 상호작용 방식의 영향을 받아 타인에 대한 견해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견해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과정들은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문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58][5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유발하며[12],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만

드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19]. 부모의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양육태도 또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서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G광역시와 J도에 소재한 4년제 남녀 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무응답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15부를 제외한 30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최종 참가자는 남자가 103명(33.8%)이고 여자가 202명(66.2%)이었다. 이 중 1학년이 81명(26.6%), 2학년 97명(31.8%), 3학년 75명(24.6%), 4학년 52명(17.0%)이었다.

2. 측정도구

2.1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PSC-YSR)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Barber(1996)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부모 심리통제 척도(PSC-YSR: 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를 최명진과 김은정[60]이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표현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문항이며, 반응양식은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다고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다.

2.2 단축판 역기능적 신념 검사(SDBT)

대학생의 사회불안 및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용래와 원호택[61]이

개발하고, 홍세희와 조용래[62]가 36문항으로 단축한 자기 보고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사회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신념 및 실수에 대한 과도한 염려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6문항이며 6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신념 수준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었다.

2.3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AEQ-K)

King과 Emmons[63]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 등[64]이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 문항이며,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4이었다.

2.4 대인관계문제 척도(KIIP)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홍상항 등[65]이 개발한 한국판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Short form of the KIIP Circumplex Scales: KIIP-SC)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남경[66]의 연구에서와 같이 Horney[67]의 이론을 적용한 대인관계문제를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총 40문항이며,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결과분석은 SPSS 22.0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6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6번을 적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을 활용하였으며, bootstrap 검증 시 샘플 수는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로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 본 결과, 왜도 2이하와 첨도는 7이하로 각각 표본의 정상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9]. 변인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 신념($r=.37, p<.01$), 정서표현 양가성($r=.29, p<.01$), 대인관계문제($r=.48, p<.01$)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역기능적 신념은 정서표현 양가성($r=.48, p<.01$)과 대인관계문제($r=.70, p<.01$)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r=.63, p<.01$)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표 1. 변인들 간의 관계(N=305)

| 변인 | 1 | 2 | 3 | 4 |
|---------------|-------|-------|-------|------|
| 1. 부모의 심리적 통제 | 1 | | | |
| 2. 역기능적 신념 | .37** | 1 | | |
| 3. 정서표현 양가성 | .29** | .48** | 1 | |
| 4. 대인관계문제 | .48** | .70** | .63** | 1 |
| 평균 | 1.66 | 2.80 | 3.03 | 2.24 |
| 표준편차 | .58 | .79 | .72 | .64 |
| 왜도 | 1.01 | .21 | -.41 | .18 |
| 첨도 | .49 | -.17 | .24 | -.33 |

** $p<.01$

2.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ayes[6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모델 6번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2], [그림 1]과 같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 신념($\beta=.37, p<.001$)과 정서표현 양가성($\beta=.14, p<.05$), 대인관계문제($\beta=.21,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기능적 신념은 정서표현 양가성($\beta=.43, p<.001$)과 대인관계문제($\beta=.45,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문제($\beta=.35,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변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과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거나 사라져야 한다[70]. 본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48, p<.001$),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추가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21, p<.001$). 따라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 변인 | β | β | se | t | LLCI* | ULCI** |
|-------------------------|---------|---------|-----|----------|-------|--------|
|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신념 | .50 | .37 | .07 | 6.82*** | .36 | .65 |
|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표현 양가성 | .17 | .14 | .07 | 2.49* | .04 | .30 |
| 역기능적 신념 →정서표현 양가성 | .39 | .43 | .05 | 7.78*** | .29 | .49 |
|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인관계문제 | .24 | .21 | .04 | 5.54*** | .15 | .32 |
| 역기능적 신념 →대인관계문제 | .37 | .45 | .03 | 10.74*** | .30 | .44 |
|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 | .31 | .35 | .04 | 8.53*** | .24 | .38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 $p<.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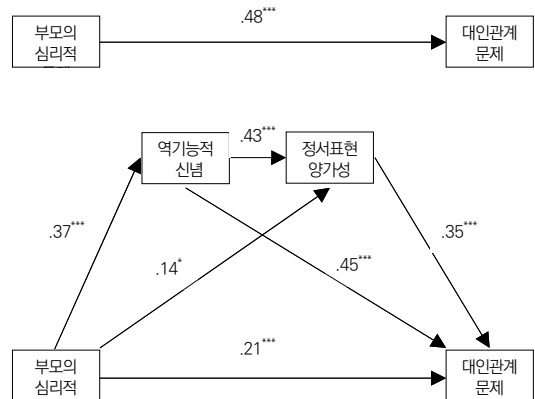


그림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27(.19~.34)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매개효과 검증결과 M1(X→M1→Y)는 .12(.04~.19)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았고, M2(X→M2→Y)도 .11(.06~.17)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매개효과의 크기 검증결과 M1과 M2(X→M1→M2→Y)는 -.01(.19~.34)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 경로 | Effect | Se | LLCI | 95% | ULCI |
|--|--------|-----|------|-----|------|
| 부모의 심리적 통제(X) →역기능적 신념(M1) →대인관계문제(Y) | .12 | .04 | .04 | ~ | .19 |
| 부모의 심리적 통제(X) →정서표현 양가성(M2) →대인관계문제(Y) | .11 | .03 | .06 | ~ | .17 |
| 부모의 심리적 통제(X) →역기능적 신념(M1) →정서표현 양가성(M2) →대인관계문제(Y) | -.01 | .02 | -.06 | ~ | .04 |
| 총 간접효과 | .27 | .04 | .19 | ~ | .34 |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신념,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매개를 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과보호적 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한다[12]는 연구와 일치

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과도할 경우 자녀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져서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이 커진다[20]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린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에서 많은 혼란과 무력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71].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72], 부모자녀관계[73][74], 부모화 경험[75][76], 애착[77][78], 부모와의 의사소통[79][80] 등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대부분의 부모-자녀 관계는 생애초기부터 성장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62].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적 신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기능적 신념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신념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역기능적 신념은 성장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해 부적응적인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의 초기어린시절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경험이 역기능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81]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상황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역기능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고[82], 역기능적 도식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36]는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분노억제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76]으로 나타난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생애초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해 반복된 좌절을 경험한 자녀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발달되며[82], 이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83]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차례로 거쳐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양가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이중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거절 도식 및 단절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적 과민반응과 정서적 단절이 매개역할을 하였다[84][85]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지각이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고, 대인관계문제를 설명하는 데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는 걸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신념,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대처반응과 대처전략과 관련이 있는 인지적 측면(역기능적 신념)과 정서적 측면(정서표현 양가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셋째,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부모의 양육방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지와 정서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후 그들의 역기능적인 인지와 정서문제에 대한 개입을 먼저 한 후 대인관계능력 향상 전략을 돕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 정서문제에 발달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인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봄으로서 정서표현 발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현장에서 부모의 통제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 내담자에게 연구결과에서 얻은 근거자료를 토대로 효율적인 접근과 이론적 기초자료를 통한 상담전략을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하면서 자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수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 의하면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표현 양가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영향력을 지닌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았더라도 역기능적 신념이 형성되지 않았고, 정서표현 양가성이 낮다면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역기능적 신념, 정서표현 양가성, 대인관계문제의 전체 값으로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인관계문제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변인임을 고려하여 각 연령대별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변유정,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 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3.
- [3] 권석만, "이차적 분노사고와 대인관계문제 및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제3권, 제1호, pp.1-22, 2017.
- [4]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pp.559-567, 2004.
- [5] 유은영, 윤치근, 양유정,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

- 증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3권, 제1호, pp.274-283, 2012.
- [6] 조윤경,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1호, pp.91-109, 2003.
- [7] 최임정, 심혜숙,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2호, pp.479-492, 2010.
- [8] 김성령,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9] L. E. Alden and N. Phillips,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14, pp.499-513, 1990.
- [10] 이은주,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11] 정수정,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지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2] 김지윤, 진미경,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제26권, 제4호, pp.355-378, 2019.
- [13] Bronfenbrenner,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Vol.34, No.10, pp.844-850, 1975.
- [14] 허인아, 이민규, “성인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30권, 제4호, pp.71-91, 2017.
- [15] 김경원, 양수진,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31권, 제3호, pp.139-161, 2018.
- [16] 배애진, 심혜원,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비불안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0권, 제4호, pp.1193-1217, 2018.
- [17] 신채영, 윤순화, 윤경미,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2호, pp.131-151, 2013.
- [18] 권두리, 신나나,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4권, pp.147-148, 2018.
- [19] 이은지, 서영석, “불안전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기자비와 낙관적성향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제26권, 제2호, pp.413-439, 2014.
- [20] B. K. Barber and E. L. Harmon,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5-52, 2002.
- [21]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녀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7권, 제3호, pp.140-170, 2014.
- [22] M. M. Nanda, B. A. Kotchick, and R. I. Grov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hood anxiety: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lack of contro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1, No.4, pp.637-645, 2012.
- [23] 이은주,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4] 정수정,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지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5] 오남경, 권혁철, 이영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분리개별화 및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분리불안과 함입불안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제19권, 제1호, pp.85-102, 2012.
- [26] 류아영, 윤순화, 윤경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열린교육학회, 제22권, 제3호, pp.135-155, 2014.
- [27] 김정원, 양수진,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통제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31권, 제3호, pp.139-161, 2016.
- [28] 이연정, 최은실, “기혼여성의 부부갈등과 우울 증상의 관계: 성취지향성 및 사회적 의존성 역기능적 태도

- 의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7권, 제1호, pp.85-98, 2019.
- [29] 서은미, 최은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과 자기자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지발달장애학회, 제10권, 제1호, pp.47-66, 2019.
- [30] 이상현, 최수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표현 양가성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5호, pp.265-289, 2018.
- [31] 장해인, *지각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2]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pp.226-224, 1991.
- [33] 조용래, 원호택,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141-162, 1999.
- [34] 김성주, 이영순,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제23권, 제4호, pp.759-782, 2016.
- [35] S. F. Olsen, C. Yang, H. H. Craig, C. C. Robinson, W. Peixia, D. Nelson, J. Nelson, S. Jin, and J. Wo,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arber, B.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 [36] D. A. Clark, A. T. Beck, and B. A. Alford,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John Wiley. 1999.
- [37] 안하얀, 서영석,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3호, pp.575-603, 2010.
- [38] L. A. King and R. A. Emmons, “Conflict over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4, pp.864-877, 1990.
- [39] 이승미, 오경자,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기후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5권, 제1호, pp.113-128, 2006.
- [40] 최해연, 민경환,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4호, pp.71-89, 2007.
- [41] 박하얀, 정윤경, 최해연,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과이에 따른 정서표현성, 문제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아동·청소년·성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8권, 제5호, pp.189-207, 2015.
- [42] 김은경, “어머니의 정서반응태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정서능력과 대인간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하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5-181, 2010.
- [43] 박지숙, 박성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제15권, 제4호, pp.1-6, 2008.
- [44] 권연희, “유아의 사회적 위축성과 관련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표현성,” *대한가정학회지*, 제50권, 제5호, pp.13-24, 2012.
- [45] M. Mongrain and L. C. Vettese,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29, No.4, pp.545-555, 2003.
- [46] 이경희, 김봉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균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2호, pp.369-384, 2010.
- [47] 장정주, 김정모, “정서적 지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 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3호, pp.697-714, 2008.
- [48] 박경옥, 박기환,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3권, pp.77-95, 2007.
- [49] R. F. Baumeister and M. R. Leary,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117,

- No.3, pp.494-497, 1995.
- [50]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8.
- [51] L. M. Horowitz, S. E. Rosenberg, B. A. Baer, G. Ureño, and V. S. Villaseñor,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6, No.6, pp.885-892, 1988.
- [52] 김성령,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 개념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53] L. E. Alden, J. S. Wiggins, and A. L. Pincus,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5, No.3-4, pp.521-536, 1990.
- [54] J. H. Ha and H. I. Jo,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2, pp.595-611, 2006.
- [55] S. H. Kim, and J. W. Kim,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separatio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and soci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Vol.18, No.2, pp.83-97, 2004.
- [56] E. Teyber,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A relational approach*, Stamford, C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0.
- [57] 정방자, 최경희, *성숙한 인관관계를 위한 대인관계와 정신역동*, 서울: 이문출판사, 2001.
- [58] 박순일,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능동적 정서 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59] G. Parker, E. A. Barrett, and I. B. Hickie, "From nur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s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49, No.7, pp.877-885, 1992.
- [60] 최명진, 김은정, "심리적 통제척도(PCS-YSR)의 타당성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4권, 제2호, pp.51-69, 2008.
- [61] 조용래, 원호택,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적 평가 3," *한국심리학회*, 제18권, 제1호, pp.141-162, 1999.
- [62] 홍세희, 조용태,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한국심리학회*, 제25권, 제3호, pp.865-880, 2006.
- [63] L. A. King and R. A. Emmons,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pp.864-877, 1990.
- [64] 최해연, 민경환,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제4호, pp.71-89, 2007.
- [65]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 제21권, 제4호, pp.923-940, 2002.
- [66] 오남경, *대학생의 애착요인과 분리개별화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67] K. Horney, *신경증적 갈등에 대한 카렌 호나이의 정신분석*, [Our Inner Conflicts], (이희경, 윤인, 이해라, 조한익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2에 출판), pp.159-160, 2006.
- [68]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 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13.
- [69] S. G. West, J. F. Finch, and P. J. Curra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pp.56-75, 1995.
- [70] S. P. Mackinnon, S. R. Battista, S. B. Sherry, and S. H. Stewart,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predicts social anxiety using daily diary metho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6, pp.143-148, 2014.
- [71] 이찬희, 조영아,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호, pp.163-188, 2015.

[72] 윤혜영, 강지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7권, 제2호, pp.405-423, 2015.

[73] 이지선, 정혜정,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1권, 제1호, pp.99-12, 2016.

[74] 최다운, 전효정, 류미향,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1권, pp.225-226, 2017.

[75] 박지아, 김완일,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제24권, 제6호, pp.127-153, 2017.

[76] 이주현, 전영자,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화경험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제12권, pp.151-152, 2017.

[77] 김남연, 양난미,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제13권, 제5호, pp.2309-2328, 2012.

[78] 홍진이, 한기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5호, pp.367-389, 2015.

[79] 김행수, 구본용,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의 대인관계 및 고독과의 관계에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제21권, 제2호, pp.127-150, 2014.

[80] 정혜연, 이지민,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8권, 제2호, pp.169-184, 2017.

[81] K. Bartholomew and L. M. Horowitz,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1, No.2, pp.226-244, 1991.

[82] D. A. Clark, A. T. Beck, and B. A. Alford, *Scientific foundations of cognitive theory and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John Wiley, 1999.

[83] M. Wells and R. Jones,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Vol.28, No.1, pp.19-27, 2000.

[84] 나하영, 신태섭,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8권, 제3호, pp.695-717, 2016.

[85] 서수균, 권석만, “비합리적 신념, 자동적 사고 및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제24권, 제2호, pp.327-339, 2005.

저 자 소 개

이 주 희(Joo-Hee Lee)

정희원



- 199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 (학사)
- 1999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상담 및 생활지도전공(석·박사)
- 2006년 6월 : 헬싱키 대학교 MBA (리더십 전공)
- 1997년 9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심리학, 프로그램 개발

서 은 숙(Eun-Suk Seo)

정희원



- 2015년 2월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문학사)
- 2019년 2월 :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심리학 석사졸업, 박사 수료)
- 2019년 2월 ~ 현재 : 동신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객원상담사, 한국심리상담학회 1급 수련

<관심분야> : 대인관계, 진로, 정서